

# The Nursing Times

Sol-Times 1st Edition

회장 우주희 [dmb01100@naver.com](mailto:dmb01100@naver.com)  
 기사부장 이유나 [lyn9328@gmail.com](mailto:lyn9328@gmail.com)  
 사진부장 최수지 [suz729@naver.com](mailto:suz729@naver.com)  
 편집부장 주선미 [tjsal2130@hanmail.net](mailto:tjsal2130@hanmail.net)  
 총무 손건우 [gun9236@naver.com](mailto:gun9236@naver.com)

VOL.01 (10.01~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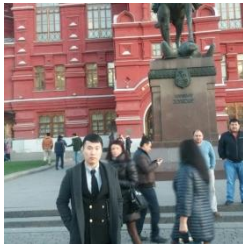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Woosong University

Published on 11.01.2015 Copyright © Sol-Times

## 넓은 세계,

### 2주간의 러시아 연수

· 청소년 국제교류 Russia 프로그램  
을 다녀온 손건우(11학년) 인터뷰



#### 1.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양국 청소년 담당부처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상호협정에 의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가간 우의 증진, 미래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한국과 교류중인 나라는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0개국, 중남미 3개국 등 11개국이 있으며, 매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국가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지원하게 된 계기와 준비는 어떻게 하였나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지원했습니다. 1차 자기소개서와 2차 면접에 대한 준비 외에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

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외활동 내용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3년간의 병원 아르바이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에는 러시아의 전통이나 문화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 사전에 러시아에 대해 공부하고 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 3.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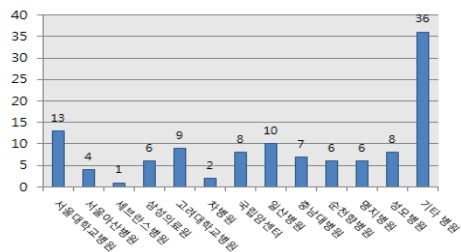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철학 강의였는데,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들 수업 내용에 대해 미리 예습을 한 듯 교수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위주로 받고 했습니다. 토론처럼 진행되는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 4.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변화된 점과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는?

2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면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습니다. 또한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3학년이 되어 현직이었던 제2외국어와 다시 시작하고 전공공부에도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 손건우 기자

### 4학년 취업 소식(15.10.31)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차 수시, 올해도 치열한 경쟁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1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1차 면접고사가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약 70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로 인하여 수시 예정일이었던 10월 16, 17일 이틀보다 하루가 연장되어 16, 17, 18일까지 총 3일간 시행되었다. 이번 수시 1차 면접고사에는 정원 내 모집인원 33명에 약 900여명이 지원하여 31대 1로 대진.충남권 내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는 적성검사와 면접고사로 이루어졌으며, 지원자들은 간호학과 내 교내 실습실인 'Sol hospital' 견학과 UCC감상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해마다 높아지는 경쟁률을 뚫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수능최저등급제 폐지의 적용을 받은 학생들인 만큼 추후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행보가 기대된다

- 손건우 기자

### 대전여고 간호학과 동아 탐방



10월 22일 대전여자고등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힐링'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모의 실습 병원 'Sol hospital' 탐방이 있었다. 해부학 모형 소개, 혈압 측정 및 인체와 유사한 인형 '피지코'를 이용한 장음, 호흡음, 심장을 듣기, 정맥주사 시뮬레이션, PICU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전여고를 졸업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학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전여고 학생들은 "타 학교 간호학과와 차별화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간호학과 진학에 대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조은수 기자/우주희 사진

## SHOW ME THE WOOSONG FESTIVAL

10월 29일과 10월 30일, 이틀에 걸쳐 우송대학교 축제가 열렸다. 학과 별, 동아리 별로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그 중 간호학과 전막이 단연 눈에 띄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풍가루나 각종 소스를 곁들인 가래떡 꼬치를 팔았다. 학생들의 폐활량 측정을 위한 풍선불기 게임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남자는 4초, 여자는 5초의 시간을 주고 가장 많이 풍선을 분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게임으로 1등의 영광은 글로벌 철도 융합학과 학생에게 돌아갔다. 간호학과 동아리에서 특색 있게 기획한 행사 또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헌혈 동아리 '헤모'는 혈액량 맞추기 게임과 닥트루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진행하였고 절주 동아리 '주인'에서는 무알콜 칵테일 판매와 함께 과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글 착용 후 장애물 피하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아마빌레', 'April's', 'Pioneer' 동아리의 길거리 버스킹 공연, 총학생회 주관의 '립밤, 가을 만들기',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축제 기념 불꽃놀이 등 각각양각색 체험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고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이효은 기자/최수지 사진



## 1학년 'Global Harmony', 2015년 첫 무대 공개 <One Fine Day in October>



지난 10월 30일 우송타워 W13 4층 강의실에서 'Global Harmony' 수업을 듣는 간호학과와 15학년 1학년 학생 72명 전원이 참가한 'One Fine Day in October' 10월 콘서트가 열렸다. 'Global Harmony' 강의는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을 도모하는 우송대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만의 수업으로, 담당교수인 Maria Monica Doroteo-Espinosa 교수가 프로그램 계획과 사회, 평가를 맡았다. 콘서트는 '파트1', '파트2', '최종' 무대로 나뉘어 '파트1' 무대에서는 '글로벌 코러스'팀의 'Beautiful Day' 등 5개 팀의 공연이 있었고, 뒤이어서 진행된 '파트2' 무대에서는 'Marhaban' 팀 외 3개 팀이 각자의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빛냈다. 마지막 순서인 '최종' 무대에서는 'Global Harmony' 학생 전원인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곡을 합창하며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연을 선보인 모든 팀이 좋은 평가와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모든 공연이 순조롭게 끝났다. 공연이 끝난 후 정은영 학과장은 "첫 개시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공연을 보여 주며 고맙고 11월 달의 무대도 기대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오는 11월 두 번째 Global Harmony 콘서트는 John E. Endicott 우송대학교 총장이 참석하는 등 더 크고 화려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이효은 기자/최수지 사진